

기업-국가 아우르는 감초 역할 '특특' 대한 넘어 세계 이끄는 경제단체 비상

>> 1면 '대한상공회의소 변신...'서 계속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전략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SME) 간의 보다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미국은 투자와 혁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해 왔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무한한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 경제외교 광폭행보
유럽·아시아 등 국가적 행사 활약
ESG 활동 소통... 글로벌 지지 확보

또,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해 중국당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8월 대한상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글로벌 경제 진흥과 한중 경제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국 측에서는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인웨이위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 양사오원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집행회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더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후 변화 등 국제 사회 현안에 대한 협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외, 지난 8월 베트남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의원 외교 및 경제외교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해당 행사의 주요 의제는 한국과 베트남 중견기업의 양국 진출 시 정부 지원 방안 및 제재 완화가 골자였다.

◆ 전 세계 상공회의소 '한국 ESG 활동' 주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유럽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선진국들이 2023년부터 기후공시 제도 등 ESG 관련 규제들을 본격 의무화 한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기업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ESG에 대한 활동, 교육 등이 제대로 갖추져 있지 않은 국가가 가장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ESG활동이 이미 구축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ESG 기준에 미흡한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실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수출기업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사절단 행사가 27일 베트남 호찌민 대통령궁에서 열렸다. 한국베트남경제협력위원회(대표 윤종근, 공동대표 권재행), 한국다문화재단(대표 이지선) 등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베트남 10개 성의 인민위원장, 호찌민 주요 정부 관계자 및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오찬간담회 /한불상공회의소



(왼쪽부터)마이클슨 에이전트, 마틴 행켈만 독일 상공회의소장, 클라우스 유르겐 필립 하우스 라벤호스트(로트백셴)대표이사, 유한정 전코 디벨롭 로트백셴 코리아대표, 피터 바이스하우스트 하우스 라벤 /로트백셴

48.1%는 '내부 전문인력 부족'을 공급망 ESG 실사 관련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진단·컨설팅·교육 비용 부담'이 22.3%, '공급망 ESG 실사 정보 부족'이 12.3%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실행하고 있는 ESG 지원 활동에 글로벌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SK회장이도 겸하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을 방문해 각국의 이해관계자들과 ESG활동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35.%) ▲ESG 실사 비용 지원(23.9%) ▲협력사 ESG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ESG 인프라·시스템 구축 금융지원(16.3%)을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해 미국워싱턴 D

C, 헝가리 등을 방문해 ESG경영을 통한 글로벌 각지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세계 각국 상공회의소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2022 글로벌 ESG 포럼을 개최해 ESG 전반을 다룬 세션을 다뤘다.

◆ 해외 상공회의소, 韓 기업과 협력 사례 늘어나

아울러 국가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상공회의소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

는 사례도 늘고 있다.

FTA를 기반으로한 자국의 브랜드가 한국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중 가장 경제활동에 적극적이고 시대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해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통한다.

해외 상공회의소, 韓 협력 증가 오스트리아 교역 전년비 13% ↑ 인니 대통령 내한... 교류 강화

실제,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는 에너지 음료 레드불, 주얼리브랜드 스와로브스키를 필두로 한국유통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는 모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 간 교역은 1년 전보다 13%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과의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브랜드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과의 교류에 적극적이다. 아르사드 라스짓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회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지난 7월 27~2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현대자동차를 지목해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독일도 자국 브랜드를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실제 마틴 행켈만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지난달 30일 독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트백셴' 물류센터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 경기도 화성에 구축하는 준공식에 직접 참석했다.

현장에서 마틴 행켈만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한국은 글로벌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매력적이고 중요한 나라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전 세계 마켓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양국간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이같은 활동을 통해 해외 상공회의소들이 한국기업들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지난해 11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